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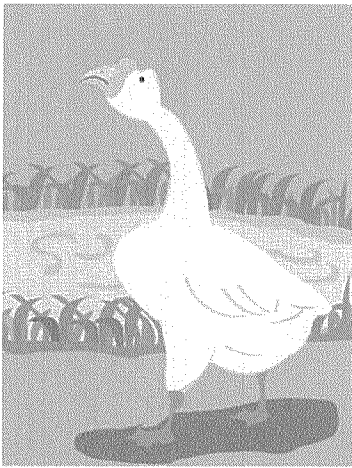


오리사육 시설의 새로운 방향 제시

『오리세상』 사육농장을 찾아서

업체탐방

조 문 규 사무국장



축사시설의 현대화는 오리사육농장은 물론이고 오리관련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최대 관심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축사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용과 오리 사육관리 의 적합성 그리고 분뇨처리 등 사육환경이외에 경제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만족하는 시설의 방향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축사시설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보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오리세상」의 오리 사육시설은 오리 사육농가들이 이미 현장에서 적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사육시설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장을 찾은 것은 현장시설을 돌아보고 이 시설에 대한 합리성을 함께 토론하여 보다 합리적인 오리축사의 방향을 정립해 보자는 의도에 있다.

「오리세상」의 윤대섭 사장이 오리와 인연을 맺은 것은 8연전 유향오리 전문식당을 오픈하면서, 오리 사육을 시작한 것은 유향오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직접 사육을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윤 사장 역시 오리 사육에는 아는 것이 없었고 주변의 사육현장을 보고 축사시설을 하였고 93년까지 일반적인 오리 사육농가의 사육형태인 평사에서 오리를 사육해 왔다.

오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 사료비용의 절감, 질병문제 그리고 깔짚 문제이다. 윤 사장 역시 같은 고민을 하다 전남의 한 사육농가에서 깔짚을 전혀 깔지 않고

그물망을 쳐 오리를 사육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농장 시설을 돌아보고 자체 고안하여 현재의 케이지 시설을 설치한 것이 94년 초이다.

방법은 케이지 사육

윤 사장은 농장가동 8개월이 지났는데 오리를 사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출하일령이 2~3일 단축되고 깔짚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되며, 농장 인력이 절감되는 등 이 시설 설치 이후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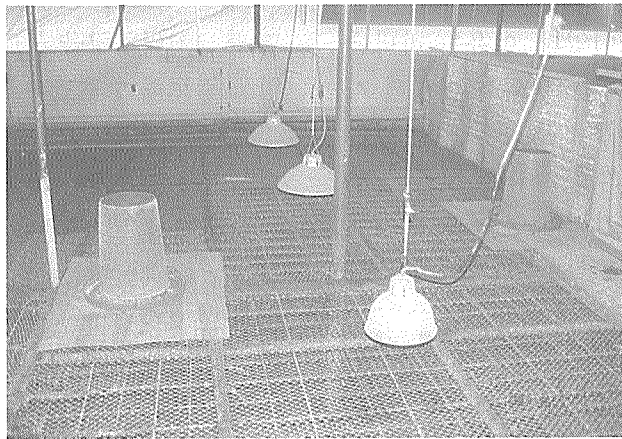
「오리세상」 농장의 전체 대지면적은 6백평이고 축사옆으로 민가가 위치해 있어 오리 사육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윤사장은 오리사육에 따른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냄새가 별로 나지 않고 폐수 역시 한방울도 민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오리세상」 농장의 축사실 평수는 육추실을 포함하여 4백평 정도이고 2백평

파이프 하우스 형태의 연동식 2동이 한데 합친 형태로 설계되어 지어졌고, 축사 높이는 다른 축사에 비해 높으면서 중간에 환기 구멍을 낸 형태를 띠고 있다.

20평 내외의 육추사 역시 바닥에 좁은 구멍 형태의 플라스틱 망을 깔 형태의 케이지



에서 오리가 육추되고 있고 분은 바닥으로, 먹고 남은 물은 별도로 분리되어 분뇨처리 정화조 시설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난방기는 3만원내외 하는 할로겐 전기히터를 6개정도 설치하였고, 아주 추운날씨에만 별도로 가운데 주는데 큰 문제가 없단다. 지금은 한번에 1천수의 어린오리를 입식하고 있는데 육추사의 육추율은 98% 내외로 거의 폐사가 없고 1천5백수까지 육추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사장의 설명이다.

육추가 끝난 오리는 할로겐 전기난방기 2대가 설치되어 있는 25평 내외의 케이지 시설로 이동되어 육성사육이 시작된다. 육성사의 케이지 시설은 높이가 1m50cm로 4백평 축사 전체가 하나의 케이지화 시설로 지어졌고 세로 중간에 칸을 막은 형태로 지어졌다. 바닥에는 단계별로 구멍이 다른

플라스틱 바닥재를 주문제작하여 깔고 중간에 와이어 줄을 깔아 그물망이 쳐지지 않고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되어 졌다. 육성사는 1주일 간격으로

칸을 막아 이동되도록 설계되어졌고 4백평 축사 전체가 6개 방으로 구획되어 단계별로 이동되고 마지막 단계인 35일령에 이동된 방에서 사육되어 출하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료 급여는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사료

빈 라인 바로 옆에 유황을 첨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 자동급이 작동과 동시에 일정량의 유황이 사료에 섞여 급이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음수는 일자형 통에 구멍을 낸 형태의 급수조를 선택하고 남은 물은 옆으로 떨어져 정화조 시설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졌다. 평소 사육시에는 니플급수기를 설치하였으나 물을 충분히 먹어야 증체가 잘된다는 경험적 생각에 이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분뇨처리, 사육환경에 문제없어

이 농장을 찾아간 때는 겨울철로 보온이 필요한 시기였으나 축사 내부의 환경은 다른 농가의 평소 내부에서 나오는 냄새와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축사 중간의 환경은 더 좋다는 인상을 받았다. 분뇨가 바닥에 있어 가스가 올라와 냄새가 많이 날 것이란 선입관이 불식되는 순간이었다. 이유는 바닥에 떨어진 분뇨위로 막이 형성되어 발생된 가스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데 있는 것 같았다. 이 시설에서 오리를 사육한 것은 봄부터인데 여름철 오리가격이 안 좋고 장마에 의해 외부의 물이 축사내부로 들어와 3달

간 입식을 중단하고 10월부터 오리를 입식하여 1월 19일 현재 8파스 정도 오를 출하한 상태에서 한번도 분뇨처리를 하지 않았단다.

바닥에 쌓여 있는 분뇨를 확인한 결과 30cm 정도가 차 있었는데 나중에 분뇨처리 문제를 묻자 윤 사장은 치울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유를 묻자 발효제를 뿌려주면 분뇨가 발효되어 현재 쌓여진 분뇨의 높이가 반으로 줄어들고 더 이상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시간을 더 두고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관찰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문제가 없으며 전남 나주의 견학 농장은 페타이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그물망을 쳐 2년 동안 오리를 사육하였는데 아직까지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사육하고 있었다며 분뇨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정졌다. 혹 문제가 생기면 분뇨처리차량을 불러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

「오리세상」이 케이지 시설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4백평을 시설하는데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됐단다. 모든 설계는 윤 사장이 하고 설치하는 전문 인력을 불러 설치했다고 한다.

이 시설 설치이후 농장관리인 한 사람이 놀아가면서 7천수의 오리를 관리할 수 있어 농장인력이 반으로 줄어들어 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되었고, 수당 3백원정도 소요되는 깔짚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아 생산비를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고 출하일령은 3일정도 빠르게 출하하여 사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당 1천수를 기르고 있는데 현재 시설에서 주당 1천5백-2천수 사육이 가능하다는게 윤사장의 설명이고 보면 평당 오리사육수수도 배정도 높아져 단위당 생산성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1년에 3차례 정도 설탕과 발효제를 섞어 바닥에 뿌리는데 비용은 한 번에 이만원 정도 소요되고 정화조 시설 찌꺼기 처리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가 분뇨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란다.

따라서 이 농장의 케이지 시설에 의한 경제적인 비용절감 효과는 깔짚비용에 수당 300원, 인력절감에 200원정도 기타 100원을 계산해도 일반 평사 사육에 비해 수당 600원 내외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 농장의 케이지 사육시설에 소요된 비용은 단순 비교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감안할 때 1년반 내외면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빠지게 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만일 분뇨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검증이 이뤄지면 사육시설 개선에 있어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권장될 수 있는 축사 시설로 평가되고 있다.

아무튼 현재 「오리세상」의 케이지 사육시설은 평사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것 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분뇨처리에 대한 검증 절차가 남아있어 지금 당장 쉽게 권장될 수는 없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 업체에서 일본수출을 겨냥하여 같은 시설을 하고도 분뇨처리문제 때문에 바다에 분뇨처리를 위한 별도의 스크레파 시설보완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시설을 쉽게 권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가스에 의한 폐사문제는 확실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가 윤 사장의 말대로 문제가 없는지는 더 지켜보고 처리방향에 대한 고심도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당초 수만골 오리고기 요리전문점을 운영하다 상호를 「오리세상」으로 변경하여 오리체인점 사업을 2년간 해오고 있는 윤 사장은 현재의 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오리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오리고기 전문점을 2월중으로 열어 사육과 유통을 연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오리고기 대량 소비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부모님이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다 오리를 먹고 이 병을 고치신 이후 오리의 좋은 점을 알게 되어 오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밝힌 윤사장은 이렇게 몸에 좋은 오리고기가 돼지고기보다도 싼값에 팔리고 장기불황에 의해 오리업계 관계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심경을 털어놨다.

오리업계 종사자들이 웃을 수 있는 희망찬 날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 모두가 올바른 사업추진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가능하다고 밝힌 윤 사장은 업계 종사자들이 상생을 통한 올바른 사업추진에 의해 성장하고 발전되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희망한다며 말을 맺었다.